

# “5·18 교육, 와곡 넘어 세계로 확산”

광주시교육청, 5·18민주화운동 39주년 기념 다채로운 사업 추진

“전국 시·도교육청과 함께 대한민국 민주주의 역사교육 활성화”

광주시교육청이 39주년 5·18민주화운동 기념일을 맞아 ‘왜곡을 넘어 교육을 통한 5·18기억의 공유와 확산’을 기치로 다채로운 기념사업을 진행한다.

7일 광주시교육청에 따르면 최근 잇따라 논란이 된 5·18 역사왜곡과 폐쇄에 대응해 5·18 교육을 전국으로 확산시킬 방침이다. 특히 시교육청은 5·18 1010(5·18 열흘간의 항쟁, 열 가지 이야기)’ 책자를 제작해 전국의 학교에 보급한다.

5·18민주화운동에 대해 전국의 학생들이 반드시 기억해야 할 10가지 이야기를 담은 이 책자는 오는 9일부터 전국 360여 개 지역 교육지원청에 5부씩 배부된다. 또 교육적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 각 시·도교육청 협조를 얻어 책자의 파일 자료를 전국 모든 학교에 공문 발송할 예정이다.

5·18민주화운동의 전개 과정과 의미를 담은 영상자료와 카드뉴스를 제작해 전국 시·도교육청에 배부하며 전국의 교육청 및 학교 홈페이지, SNS 등을 통해 공유할 계획이다.

전국 시·도교육청들과 5·18교육 전국화를 위한 긴밀한 협력체계도 구축한다. 17일 광주에서 전국의 역사교육 및 5·18교육 담당자 협의회를 개최한 뒤 18일 기념식까지 공동 참석할 방침이다. 특히 지난 달 4·3을 기념해 제주에서 진행했던 ‘광주5·18과 제주4·3을 있는 공동 포럼’을 9일 광주시교육청 대회의실에서도 개최한다.

장희국, 이석문 교육감 등이 참석하는 이번 포럼에서는 광주5·18과 제주4·3 교육 활성화를 위한 양 교육청의 업무협약이 체결된다. 또 한홍구 교수의 강연, 연계교육 시례 발표 등이 이루어지며, 포럼 부대 행사로 5·18수업 참관, 사적지 답사, 연극 관람을 통해 광주5·18과 제주4·3의 긴밀한 연대를 시도한다.

4월18일 인천을 시작으로 진행되고 있는 전국 교원초청 5·18교육 직무연수도 차질 없이 추진된다. 5월 10~11일에는 강원, 16~17일에는 충남 교원을 비롯해 연중 전국 9개 지역 교원 500명을 대상으로 1박2일 동안 5·18 현장 연수가 실시된다.

5·18교육 전국화와 세계화를 위

한 새로운 모색도 시도된다. 시교육청은 5·18기념재단, 전남대 5·18연구소와 공동으로 17일 5·18교육포럼’을 개최한다. 5·18 기억의 재생산과 확산’을 주제로 현재 전국에서 진행되고 있는 오월교육을 성찰한다. 특히 오월과 유사한 역사적 경험을 가지고 있는 대만, 독일의 사례와 현황을 공유하면서 5·18교육의 전국화를 넘어 세계화를 모색한다.

광주 관내 및 전국 학생 대상 프로그램도 다양하게 준비하고 있다. 4월29일 오월 사적지 탐방프로그램인 ‘오월길 역사기행’을 시작으로 스마트폰 활용 5·18사적지 코스 체험인 ‘5·18스마티어링’, 5·18레드페스티, 오월의 책 독후감 대회 등이 이어질 예정이다. 이 모든 행사는 학생이 참여하고 주도하는 형태로 진행된다. 학생들은 올해 국가보훈처 주관 5·18민주화운동 기념식에도 자율적으로 참여할 예정이다.

타 지역 학생들을 위한 1박2일 5·18 캠프도 6월15일 영남 지역 학생을 시작으로 총 10회 500명을 대상으로 진행된다.

관내 각급 학교는 5·18민주화운동 기념주간을 5월 18일부터 27일까지 자율적으로 운영한다. 기념주간 동안 현수막 게시, 학생회 주관 기념식, 계기교우, 주민발 급식, 사적지 답사 등 현장체험학습 등이 진행된다. 특히 5·18 청소년 학생자(18명)가 나온 학교(16교)에서는 자체 계획에 따라 주모행사를 준비하고 있다. 시교육청은 이를 위해 지난 4월 초 각급 학교 5·18 담당자를 대상으로 워크숍을 개최하고 지난해 말 개발된 5·18 초등용 교육자료를 배포했다.

이밖에도 교원의 5·18교육 역량 강화를 위해 ‘교직원과 함께하는 오월이야기’ 원형연수를 5월부터 개설해 연중 운영한다. 또 5·18을 문화예술로 체험할 기회도 제공한다. 지역의 전문 국단과 함께 연중 총 10회, 5,000여 명 학생들에게 5·18을 정서적으로 교감할 수 있는 시간을 갖는다.

광주시교육청 장희국 교육감은 “5·18민주화운동에 대한 왜곡과 폐쇄가 끊이지 않는 현실에서 광주를 넘어선 진실과 교육의 연대”가 정말 중요하다”며 “5·18교육 전국화를 넘어 전국 시·도교육청과 함께 대한민국 민주주의 역사교육 활성화를 적극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조인호 기자



## 화순교육지원청 ‘악樂동童 음악회’ 개최

이서 뽕모실 마을학교 주최

화순교육지원청(교육장 최원식)에서는 화순교육지원청 지정 뽕모실 미술학부(교장 조유성)주최로 4일 이서면 커뮤니티센터에서 학생들과 지역주민이 함께 즐기는 악樂동童음악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화순 뽕모실 미술학교는 이서면 커뮤니티센터에서 방과후에 학생들에게 어린이 전래놀이, 난타 및 음악수업, 목공 수업, 스포츠 교실, 이외 나들이 수업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미술 주민과 함께 운영하고 있다.

특히 이번 음악회는 화순적벽 난장 개장을 축하하고 지역민이 함께 어우러지는 축제의장을 만들고자 이서분교장 아이들과 학부모, 지역민들이 함께 준비한 자리였다.

‘악樂동童음악회’ 이름에 걸맞게 화순초등학교 이서분교장 학생들의 지역주민과 공연 마당 마리였다.

화순=박순철 기자

전남교육청 제1회 검정 고시 합격자 내일 발표

전남도교육청(교육감 장석웅)이 2019년도 제1회 초졸·중졸·고졸 검정고시 합격자를 9일 오전 10시 전남도교육청 홈페이지를 통해 발표한다.

지난 4월 13일 실시한 이번 시험에서 초졸은 74명이 응시, 66명이 합격해 89.2%의 합격률을 보였다. 또 136명이 응시한 중졸은 110명이 합격해 85.3%의 합격률을, 566명이 응시한 고졸은 387명이 합격해 66.8%의 합격률을 기록했다.

최고 득점은 초졸 100점, 중졸 99.33점, 고졸 100점으로 나타났다. 최고령 합격자는 초졸 배모(74세, 여), 중졸 권모(65세, 남)씨, 고졸 황모(65세, 남)씨가 차지했으며, 최연소 합격자는 초졸 이모(11세, 남)군, 중졸 오모(12세, 남)군, 고졸 송모(12세, 남)군이 합격의 영예를 안았다.

## 광주학생교육문화회관, 학교 밖 문화탐방 ‘인기’

학생 3500명 대상 4월16일부터 11월26일까지 운영



광주학생교육문화회관(관장 양주승)이 올해 처음으로 운영하는 문화체험 나들이’ 프로그램이 참여자들에게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

‘문화체험 나들이’는 광주시교육청 관내 초·중학생 3500명을 대상으로 문화예술 기관과 연계를 통해 청소년에게 다양한 체험 기회를 제공하는 프로그램이다. ‘사찰로 떠나는

‘문화체험 나들이’는 4월16부터 11월26일까지 매주 화요일에 진행하고 있으며 올해 과정은 활발한 신청 속에 2018년 12월에 이미 참가 신청이 완료됐다. 2020년 과정은 올해 말부터 신청을 받는다.

참여한 학생들은 “새롭고 즐겁다”, “프로그램 내용이 알차다”, “결과물도 만족스럽다” 등 즐겁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영화관 시설 견학 후 최신 영화까지 감상하게 된 학생들은 ‘생일, 다시 볼, 이번에는?’ 등 평소 보고 싶었던 최신 영화를 선택하기도 했다.

광주학생교육문화회관 양주승 관장은 “문화예술 기관과의 연계를 통해 청소년이 창의적으로 소통하고 자유롭게 자신의 끼를 발산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해주는데 의미가 있다”며 “앞으로도 지역의 다양한 문화자원을 활용한 교육프로그램을 지원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조인호 기자

## “장흥고, 다(多)문화 어울림 한마당 운영”

장흥고등학교(교장 김광수)는 지난 3일 장흥군기족센터와 연계하여 본교 강당에서 다문화전통음식만들기 체험을 실시하였다.

이날 체험활동은 다양한 국가의 음식과 문화를 소개하는 홍보의 시간을 갖은 후 룸파파, 월남쌈 등 세계 음식을 직접 만들어보고 맛볼 수 있는 전통음식 체험 부스 축제의 즐거운 순간을 긴직할 수 있는 즉석 사진 인화 부스를 체험하는 것으로 이루어졌다. 또한 문화 예술동아리 공연 및 외국인을 위한 급식 메뉴 식단짜기 등 다양한 불거리와 즐길 거리로 학생들에게 새로운 경험을 선물했다.

지도교사 김현정 선생님은 “이번 행사를 통해 학생들이 한자리에 모여 서로의 문화에 대해 이해하고 서로를 존중하고 이해하는 마음을 갖게 되기를 바란다”고 소감을 남겼다. 장흥고는 장흥군 및 장흥군기족센터와 연계하여 활동하는 과정에서 지역사회와 학교, 다문화가정이 협력하여 긍정적 협력과 소통의 선도적인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장흥=송호빈 기자

### ◆ 광주지국안내

계립 010-3635-7195	백운 010-2943-8374
중앙 010-3365-6200	광산 010-5604-6533
학운 010-4166-1810	송하 010-8620-1925
광천 010-6612-8599	임동 010-2656-4543
금호 010-6636-2775	양산 010-2646-3205
상무 010-5359-7406	오치 010-7532-3313
풍암 010-6634-5084	북구 010-4601-2080
화정 010-8438-3819	동운 018-611-7751
봉선 010-9474-0212	용봉 010-4601-2080
진월 010-2615-8374	두암 010-2684-6091

### ◆ 시외안내

강진 010-4606-0660	영암 010-5655-2415
담양 010-3629-9016	완도 010-9578-5900
무안 010-5234-2313	장성 010-5287-7711
보성 061-853-9125	장흥 010-6234-6226
순천 010-2300-9083	진도 010-3081-5203
광양 010-5604-6981	함평 010-3625-3160
여수 010-6655-8503	화순 010-2077-6464
영광 010-3611-3081	곡성 010-3615-1088

화순 이서적벽

“지역언론의 바른길을 열어갑니다”

# 湖南新聞

▶ 구독신청 및 기사제보 및 독자 의견  
(062) 224-5800

이메일 : ihonam@naver.com

팩스 : (062)222-5548

▶ 본사 : 광주광역시 동구 남문로 753번길 7 (광주시 동구 학동 633-3 번지 정도프라자 5층)